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 지원한다

전북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 각급 학교 학칙에 반영 당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연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외 체험학습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행해야 하며, 부모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 요구, 학교장의 교육 목적에 따라 학교별 세부 시행 방침 등을 마련해 학칙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고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도 있다. /장은성 기자

교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게 되면 관련 학교장의 상호 협의 후 실시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 주도록 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 또는 통학 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된다.

교환학습 기간은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단축 또는 연장시킬 수도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특성화고 직업교육정책 이해 높인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년 직업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15일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계학과 설치 일반고 교장·교감·교사, 행정실 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특성화고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부사업 안내를 통해 각 학교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까지 교장 및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직업교육설명회를 직업계고 전 교직원으로 확대하면서 도교육청 직업교육 비전과 목표를 특성화고 전 교직원과 공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북 선수단, 동계체전 21년 연속 종합4위 도전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21년 연속 종합 4위에 도전한다.

지난 1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서울, 충북 등에서 열리는 동계체전에 324명(임원 126명·선수 198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정식종목(5개)과 시범종목(2개) 등 총 7개의 종목이 펼쳐지며 초등부와 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로 나뉘어 치러진다.

21년 연속 종합 4위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는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약 60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효자 종목인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많은 메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민준(실춘초)과 정영원(무주중), 김상은(안성고), 최윤아(무주고) 등 개인 선수들을 비롯해 단체 계주(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또 빙상의 노아름(전북도청) 선수와 스키(알파인)의 최태희(설천중) 선수의 선전도 기대하고 있다.

최영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사건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일부 종목에서는 불리한 대진 등으로 아쉽게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종합4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한만큼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고 레슬링 소원·한오성, 아시아카뎀대회 출전

전북체고 레슬링팀의 소원(1년)군과 한오성(1년)군이 '2019 아시아카뎀레슬링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난 1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인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카뎀레슬링 대회에서 소원, 한오성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대표로 오는 6월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카뎀대회에 출전한다.



카뎀 대회의 출전 나이제한은 18세 이하로 19세(고3)부터는 출전할 수가 없다.

그레코로만형 55kg에 출전한 소원 선수는 결승전에서 상명고 선수를 만나 9대1 테크니컬 폴승을 거뒀다.

자유형 60kg에 출전한 한오성 선수는 전남체중 3학년 선수를 만나 점진 끝에 4대3 폴승을 거뒀다.

특히 전북체고 1학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의 선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체고 관계자는 "2019년도 첫 출발이 좋은만큼 올 한해 있을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정환·김신규 지도자 등의 열정과 선수들의 노력이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생활의 추억 다지는 따뜻한 졸업

동신초, 학부모와 함께하는 '무박 2일 졸업축제' 가져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동신초등학교(교장 김수봉)에서 '무박 2일 졸업 축제'가 펼쳐졌다.

이번 졸업식은 가족·친구·선생님과 통(온통), 통(소통), 통(형통)하는 졸업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졸업의 의미와 학교 생활의 추억을 다지는 따뜻한 졸업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만든 축제의 현장이었다. 특별히 '무박 2일 졸업 축제'로 진행하여 짧은 졸업식의 아쉬움보다는 친구들과의 행복한 나날로 기억될 수 있었다.

14일에는 졸업식 전야제로서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 6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하여 자녀의 졸업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나 편지를 모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모님의 졸업 축하 영상을 보고 한 학생은 "졸업식에서 졸업장만 받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사랑

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라며 참여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가족과 선생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졸업식 전야제에서 동신초 김수봉 교장선생님은 학급별로 다니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15일 오전에는 졸업생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신나게 보내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주서 뿌듯했어요"라는 소감을 남겼다. 더불어 학부모 축하 공연이 이어져 지켜보던 재학생, 졸업생 모두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는 "무박 2일 졸업 축제는 가족과 친구, 선생님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 본교에서 처음 실시한 무박 2일 졸업 축제가 소통과 공감에 있는 졸업문화 형성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문해교육 이수생 수여식 개최... 어르신 153명 초등 학력 인정 받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5일 2층 강당에서 2018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153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초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들이 참석했다. 전주주부평생학교 40명, 군산시 늘푸른 학교 31명, 시민교육센터 5명, 우리배움터한글학교 7명, 무궁화야학교 6명, 울림야학교 6명, 남원시 평생학습관 8명, 진달래학교 12명, 비봉면사무소 11명, 고산면사무소 19명, 부안군 배재정촌학교 8명이다.

이수자 가운데 남성은 2명, 여성은 151명이며, 최고령자는 88세 소채순씨(29년생)이며, 최연소자는 44세(73년생)이다.

도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11개 기관으로 2019년부터 초등과정 7개 기관, 중학과정 1개 기관이 신규 및 재지정 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313명이 문해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취득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



전북교육청이 지난 15일 2층 강당에서 2018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153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학력인정 초등·중학 교육과정은 각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수까지는 단계별 1년씩 총 3년이 소요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갖춰 교육감에게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문해교육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신청하면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서 학력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